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희생 덕분임을 잊지 말아야”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과 6.25전쟁에서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바친 호국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위에 세워진 나라이다.

본보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도내 서부 권역(익산, 군산, 김제, 정읍, 부안, 고창)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행정을 펼치고 있는 이우실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시민분들께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이우실입니다.

우리 전북서부보훈지청은 전북 서부지역인 익산, 군산, 김제, 정읍, 부안, 고창 6개 시군의 1만 6천여 명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행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6월 호국보훈의 달 의미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봄으로써 국가보훈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인지 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제도 홍보와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헌애는 존경과 감사의 기회를 주신 전주매일 관계자 여러분께 보훈가족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

6월은 현충일과 민족의 아픔인 6.25전쟁이 발발한 달입니다. 사실 보훈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 시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민족에게 큰 아픔으로 기억되고 있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여 특별히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실시 및 계획 중인 기념행사

올해 호국보훈의 달 행사는 “보훈은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 호국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의 수난과 발전의 역사에서 희생하고 공헌한 독립·호국·민중유공자에 대한 추모와 존경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 호국정신 함양과 보훈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로들어 지난달 28일 열린 서동축제 호국퍼레이드, 이달 6일 열린 현충일 추념식, 26일 열린 지역 호국영웅을 주제로 한 애국올림픽콘서트 등이 있다.

▲ 올해 전북서부보훈지청에서는 다른 기관들과 일일 명예기관장 체험과 MOU체결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일명예기관장 체험은 '사회지도층과 함께하는 명예로운 보훈' 『소통, 공유, 협력』 등 정부 3.0실천과 국민이 공감하는 행정구현을 위한 것으로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



서동축제 호국퍼레이드·현충일 추념식·애국올림픽콘서트 등 호국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시킬 수 있는 행사 적극 추진

민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작년 12월 3일 익산 우체국(우체국장 이승수)을 시작으로 3월 21일고용노동부(지청장 전해선), 5월 12일 익산세무서(세무서장 임희창)와 상호 기관 간 일일 명예기관장으로 위촉하는 위촉식을 가지고 현장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기관의 기관장은 보훈지청의 민원상담과 재가복지대상자 위문, 군경모지 총령탑 참배 등 보훈지청장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저는 각 기관의 업무 현황청취, 민원상담, 일일명예기관장 체험을 위한 나라사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보훈문화 확산과 국가유공자 위문 등 복지지원사업과 국가유공자의 세금감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세금혜택 등 국가유공자를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는 우리 가까이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인물들을 알고, 그분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이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 출신학교를 소중히 여기고 있죠. 이런 국민 정서에 맞게 지역별로 우리고장 출신 호국영웅의 동상이나 흉상을 설치하고 학교에 추모비를 세우며, 도로 및 회의실, 강당에 호국영웅의 이름을 붙이고 추모제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선양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익산에 소재한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익산 출신 황금재 상사를 비롯한 육탄

10용사상을 건립하고, 6.25 전쟁영웅이신 최득수 상사 등 호국영웅 흉상 건립하였으며, 부사관학교 내 도로에 호국영웅 이름을 딴 서부덕길과 10용사길 등 명칭을 부여하였고, 올해 2월 26일에는 연제군, 김만술 상사의 흉상 제작 건립했습니다.

또한 전북서부보훈지청은 군산시와 협조하여 올해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자인 문광욱 일병의 고향인 군산 은파호수공원 내에 문광욱 흉상을 건립하고 6.25 전쟁 당시 수많은 학도병이 출전해서 전사한 군산상고에 학도병 추모비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 사실 요즘 젊은이들, 학생들 사이에서는 나라보다는 “나”라는 존재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원인과 그에 대한 노력

전쟁의 참화를 몸으로 체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은 과거의 어두웠던 기억이 전혀 없어 서인지 부모세대의 고생담과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쉽고 편한 것만 따르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역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습득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과 국민

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6월 한 달 만 그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일년 내내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북서부보훈지청에서는 2013년부터 육군부사관학교와 나라사랑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24회 2,7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나라사랑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에서 청소년들에게 도전정신과 나라사랑정신을 키우는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학생에게는 지정장상을 수여하는 등 나라사랑정신 함양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원광대가 나라사랑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월말에 원광대학교에서 안보토론대회를 성대하게 치렀고, 6월3일에 학술세미나도 자체적으로 개최하여 대학생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나라사랑정신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익산에서 열린 서동축제 무궁화위행차 퍼레이드에 우리지청과 보훈단체회원들이 참가하여 '호국퍼레이드'를 선보임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는데, 그것이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행사와 접목하여 나라사랑 정신이 깃든 국가보훈문화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익산 서동축제에서 보여준 '호국퍼레이드'에 대해서 한 말씀

네, 이번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전북서부보훈지청과 (사)함께하는사람들의모임 주관으로 익산 서동축제 『무궁화위행차퍼레이드』에 참가하여 '호국 퍼레이드'를 선보였는데,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과거를 잊고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역시 준비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물질적 풍요의 발전된 조국, 그리고 성숙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의 덕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6월 한 달만이라도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호국보훈의 참뜻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호국영령이 잠들어 계신 가까운 국립묘지나 군경묘지, 현충시설물들을 방문하는 것도 나라사랑 정신 함양의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이웃에 있는 보훈가족을 찾아 위로·격려함으로써 다소나마 그 분들이 나라사랑의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익산=정영원 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